

MEDIA CONTACTS:

Mohamed Abdelfattah at 847-491-4890 or mohamed@northwestern.edu

Dayna Dion at 312-320-5275 or dayna.dion@northwestern.edu

미디어 연락처:

모하메드 압델파타

데이나 디온

발표일: 2020년 11월 16일

전세계 대학 총장들이 회합하여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활용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세계적인 문제들을 논의한다

유엔 사무총장 청년 특사가 생방송 스트리밍을 통해 대학의 세계적인 역할에 대해 공개적 토론을 열 예정이다

에반스톤, 일리노이주 - 오는 11월 22-24일 노스웨스턴 대학 주최하에 열리는 U7+ 세계 대학 총장 연합 회담에서 24개교 이상의 대학 총장들이 온라인상 모여 세대간의 공정성이라는 기초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다

U7+ 회담은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학 총장간 최초의 연합 모임인 U7+ 연합의 연례 행사이다.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맞서 G7국가의 정부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대학이 연계하여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노스웨스턴 대학 총장 모튼 샤피로는 이렇게 연설했다. “전세계 수백만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들은 세대간의 공정성을 장려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과 차세대의 권익과 권리를 쫓점에 두고 그들이 짊어지게 될 세계적인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협의할 대학교 지도자 회합을 주최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다.”

노스웨스턴 대학은 이 회담을 콜롬비아 대학, 조지타운 대학, UC 버클리 대학과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이다. 작년 파리 정치대학 (시앙스 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시도로 창립된 U7+ 연합을 미국내 대학에서 최초로 주최하게 되었다.

올해 회담의 주제는 U7+ 연합과 G7의 관계,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활용,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에 관한 세대간의 소통의 출발에 이르는 노력들이 포함된다. 이 회담에서는 전세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차세대의 교육적, 경제적 기회를 장려할 새롭고 보완된 헌신책을 마련할 것이다.

2020년 회담 안건은 부분적으로 제 1회 U7+ 국제 학생 포럼 ([Worldwide Student Forum](#))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서 가나, 모로코, 캐나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인도, 싱가포르, 한국, 그리고 일본의 대학생들이 기후변화,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과 불의의 포함한 세계적인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이 어떻게 그들을 교육시켜야 할지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올 해 회담의 안건 선정에 있어서 학생들은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에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회담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노스웨스턴 국제 업무처장 아넬리스 리스는 밝혔다. “우리는 대학교 연합체로서 갈수록 복잡하고 긴급해지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에 대처하여 싸워 나가야 할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공동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2019년의 첫 회담 이후, U7+ 대학들은 각 학교에서 배출하는 온실 가스 감소를 주된 목표로 삼고, 세계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방법을 파악하고, 기후관련, 생물 다양성,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수업을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에 관한 윤리적인 활용에 대한 지침을 세웠다.

11월 24일 중부 표준시로 오전 8:30 (UTC보다 6시간 늦음)에 있을 회담의 본 회의에서 노스웨스턴, 콜럼비아, 조지타운, UC버클리 그리고 파리정치대학 총장들이 모여 대학들이 어떻게 G7국가와 다국적인 단체들과 공조하여 세계적인 문제에 대처할 것인지 의견을 나눌 것이며 미디어와 일반 대중도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학생 아카펠라 그룹인 퍼플 헤이즈 (Purpel Haze)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미디어와 대중들은 여기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접할 수 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대해

1851년에 설립된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미국 상위 10위 안에 드는 명문대이며 75개국 이상에서 온 8,000명 이상의 학부생과 13,00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다. 50여개의 연구 센터가 시카고, 에반스톤, 카타르 도하 세 곳의 캠퍼스와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워싱턴DC, 그리고 마이애미의 사무실에 위치해 있다. 노스웨스턴은 35개여국의 100개교 이상의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혁신적, 통섭적 학문 공동체 조성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U7+ 연합에 대해

U7+ 연합은 전세계의 다원적 안건에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장려할 목표로 구성된 최초의 대학 총장들의 국제 연합이다. 연합 일원들은 매해 모여서 공통된 안건을 선정하고 주요 협력 사안을 파악한다. U7+의 대학 총장들은 각 대학의 고유의 시민적, 사회적 책임을 살피보며 각자의 대학을 대표하여 가장 시급한 현지,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인 이슈들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한다.